

SNUAC Visiting Scholars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15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와 비교자본주의 연구

김도균 박사

2014년 독일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MPIfG)에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1년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MPIfG는 1985년에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경제사회학 관련 연구들을 주도해 왔으며,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 및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변동과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2000년대에는 볼프강 스트릭(Wolfgang Streeck)의 주도 하에 석학들과 신진 연구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본 발표자는 방문기간 동안 동아시아 복지자본주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도균 박사는 2013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화-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에는 교토대학교의 Global COE program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Intimate and Public Spheres in 21st Century Asia"의 Asian ERASMUS program에 1년간 참여한 바 있고, 졸업 후에는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로부터 '신진학자 저술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박사논문을 연구소 모노그래프 시리즈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아시아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아시아센서스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인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일시: 2015년 5월 27일, 화요일 12:00-13: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SNUAC Visiting Scholars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15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연구

임시연

이 연구는 발표자가 2014년 2월부터 1년간 싱가포르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사회학과 소속 신분으로 진행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코스모폴리탄 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Talent)에 대한 이민정책과 이들이 싱가포르 이주 후 정착하거나 재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전략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류학 민족지 작성을 위해 이주민, 시민, 정부관료들을 심층면접하고 유관기관/행사를 참여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생한 역학관계와 실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발표 말미에는 NUS, ARI에서의 경험과 NUS LKY 정책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이수 경험 공유를 통해 싱가포르 학계의 분위기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임시연은 2013년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싱가포르에서 1년간의 현지조사 후 현재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체성"(가제)이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다. 또한 싱가포르국책연구원에서 이민정책을 주제로 발간할 예정인 단행본에 포함될 논문을 집필 중에 있다. 발표자는 2007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다문화/문화간 이해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는 유네스코평화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겸임한 바 있다.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일시: 2015년 5월 27일, 화요일 12:00-13: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